

전남 재고량 2배... '쌀값 폭락' 재현되나

태풍 피해·재배면적 감소 영향 을 생산 2.5% 줄어 74만t 예상

태풍 피해 등의 영향으로 전남지역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재고는 2배 늘어나 올해도 '쌀값 폭락'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남 지역 양곡(정곡) 재고 물량은 지난 달 말 기준 1만4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재고량 7000t 보다 2배 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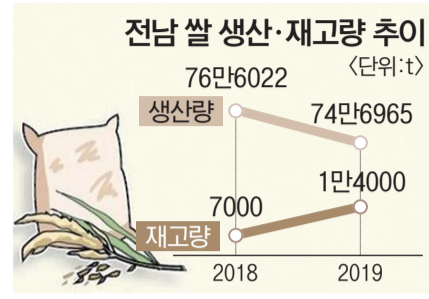
전남지역 쌀 생산량은 전국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공비축 쌀 매입은 더디기만 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가별 매입량 배정작업이 3주 넘게 늦어져 공공비축 쌀 매입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3일까지 전남지역에서 수매된 2019년산 쌀은 100t으로 집계됐다. 농협 전남본부가 자체 매입한 벼

물량은 4만2300t이다. 올해 배정된 2019년산 공공비축 쌀 매입량은 전남 8만9060t·광주 2360t 등 총 9만1420t이고 벼 매입량은 전남 12만3694t·광주 3277t 등 12만6972t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쌀 생산량은 전남 74만6965t으로 지난해 생산량 76만6022t에 비해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 377만9000t의 19.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쌀 생산량 감소는 태풍 등 자연여건과 타작물 재배·경지 감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전남 쌀 재배면적은 15만4091ha로, 지난해에 비해 0.6% 작아졌다. 광주 올해 예상 생산량은 2만5119t으로 지난해(2만4558t)에 비해 2.3% 증가했다.

통계 당국은 "벼 낫일이 익는 시기인 등 숙기에 태풍 '링링' 복상과 일조시간 감소



등 기상여건 악화로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쌀 예상 생산량은 377만9000t으로 전년보다 2.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을 포함한 전국 쌀 생산량이 소폭 감소됐지만 줄어드는 쌀 소비량 등으로 창고에 쌓인 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기준 쌀 20kg 가격은 4만797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8693원) 보

다 715원(1.4%) 떨어졌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5.1kg(2014년)→62.9kg(2015년)→61.9kg(2016년)→61.8kg(2017년)→61kg(2018년)으로 매년 줄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올해 수매진도는 지난해에 비해 늦어지는 편"이라며 "예년에 비해 쌀 공급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일부 연구결과도 있어 쌀값 반등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비축미 매입에 대한 대금은 벼 수매 직후 농가에 40kg 포대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쌀값이 확정되면 연말에 최종 정산한다. 매입 가격은 10월~12월 산지쌀값의 평균 가격으로 책정한다. 지난해 포대미(40kg) 매입 가격은 평균 산지쌀값(80kg 19만3568원)을 바탕으로 환산한 6만7050원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68.17 (+0.77)	금리(국고채 3년) 1.28 (0.00)
↑ 코스닥 646.80 (+5.34)	↑ 환율(USD) 1185.20 (+0.30)



삼일건설, 아산신도시에 전세형 임대아파트 '모종 삼일파라뷰 더 스위트' 346세대 분양

고품질 마감재·사통팔달 교통망 HUG 100% 보증...무제한 전매

광주·전남 중견건설사 '삼일건설'은 오는 18일 충남 아산 모종신도시에 전세형 임대아파트 '모종 삼일파라뷰 더 스위트' <투시도>의 견본주택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삼일건설의 대표 브랜드 '삼일파라뷰'는 1995년 회사 설립 이래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분양되고 있다.

'모종 삼일파라뷰 더 스위트'는 선호도 높은 59㎡A·B 총 346세대로 구성됐다.

혁신적인 설계와 고품질 마감재 처리, 호텔을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띈다. 내부는 삼성 홈서버넷(IoT) 인공지능 시스템, 한샘 주방가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욕실도기,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상판 등으로 채워진다.

입지도 눈 여겨 볼 만하다. 인근에는 롯데시네마, 롯데마트, 이마트, 아산마트, 이랜드북점, 온양온천 전통시장 등의 풍부한 쇼핑문화시설이 자리했고, 아산국제민체육센터, 한마음아구장, 병원, 금융기관, 행정시설도 인접해 있다.

아산시외버스터미널과 온양온천역, KTX천안아산역 등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쳤다. 또 도보 통학이 가능한 충무초가 있고 온양중, 온양여중, 용화중, 신정중, 한울중, 아산고, 온양여고, 용화고 등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도심 속에서도 쉽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곡교천과 곡교천 시민체육공원, 야영장, 장포군락지 생태공원 등 '에코 프리미엄'도 장점이다.

단지 반경 15km 안에는 '삼성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아산테크노밸리' '삼성전자 나노시티 온양캠퍼스' 등 3만2000여 명이 종사하는 대형 사업장이 들어서면서 30~40대 실수요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이번에는 '울전세형' 민간임대 방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0% 보증을 통해 시공부터 입주까지 안전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부담 없이 무제한 전매까지 가능하다.

청약통장 유무,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아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다. 주택 전시관 개관일부터 신청금 30만원으로 바로 청약할 수 있다.

주택전시관은 충남 아산시 모종동 674에 마련됐다. 18~20일 사흘 간 방문객에게 선착순으로 사은품을 증정하고 경품을 통해 해외 명품 가방을 준다. 문의 1588-0999.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시민 절반 청약통장 소유 전남 신규가입자 증가율 최고

광주 시민 절반이 청약통장을 가졌고, 전남지역 신규 가입자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EB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APT2you) 청약통장 가입 현황과 하나은행 청약통장 가입 고객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주택정책동향 시장 동향 및 가입자 분석'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4월 말 기준 광주 73만5822명, 전남 56만9682명이었다. 인구 수 대비 청약상품 가입자 비율은 광주 49.4%, 전남 31.8%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청약통장 가입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이고, 전남은 14위를 기록했다. 전국 가입자는 248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8.2%를 차지했다. 2014년 1월(1339만명)보다 87.8% 증가한 수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7~8월 전남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율이 1%를 넘기며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입자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전남 증가율은 지난 7월 1.46%, 8월 1.1%를 기록하며 해당 월의 평균 증가율 0.33%, 0.4%를 훌쩍 넘겼다. 광주지역도 7월 0.58%, 8월 0.53%로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지난해 청약 경쟁률은 대전(78대 1), 대구(44.0대 1), 광주(39.1대 1), 서울(28.6대 1) 순으로 높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전남TP, 목포 대양산단 입주기업 금융서비스 협약



지난 14일 전남테크노파크에서 광주은행과 전남테크노파크가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 후 유동국(왼쪽 다섯번째) 전남테크노파크 원장과 송종욱(왼쪽 여섯번째) 광주은행장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14일 오전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테크노파크는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신재생에너지, 조선기자재 사업지원기관으로서 목

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성장 동력사업 영위 기업의 발굴 및 기술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은행은 전남테크노파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속한 금융지원과 현장방문 컨설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대출지원비율을 80%까지 확대 적용하고, 시설자금대출은 최고 1.2%, 운전

자금대출은 최고 1.0% 금리를 감면하여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소재 기업에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민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과 함께 상생발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해양에너지 신입사원 8명 입사식...4월 이어 올 두번째

(주)해양에너지(대표 김형순)는 지난 14일 신입사원 8명에 대한 입사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월 6명의 신입사원 채용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입사식이다.

이들은 지난 6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진 면접과 임원 면접을 거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인턴으로 선발된 뒤 4개월

동안 다양한 인턴십 훈련을 받았다.

김형순 사장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발된 신입사원들이 회사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젊음과 패기를 바탕으로 회사의 비전인 '고객과 함께 미래를 밝히는 친환경 해양에너지' 달성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